

과수 묘목선택과 관리요령

사과 대목 40cm 내외 · 포도 35cm 적당

올바른 묘목 선택은 과수재배의 성패를 좌우한다. 과수는 여러 해에 걸쳐 재배되기 때문에 한번 잘못 되면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마련이다. 올바른 묘목 선택과 구입 및 관리요령 등에 대해 알아본다.

◆ 우량 묘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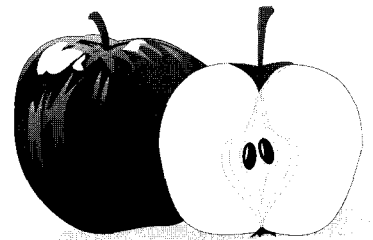
좋은 묘목은 나무껍질이 매끈하고 윤기가 있다. 마디는 굵고 짧으며, 앞눈이 충실하게 붙어있는 것이 좋다. 뿌리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웃자란 묘목은 나중에 결가지 발생이 적고 겨울에 얼거나 말라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줄기 상단이 웃자라지 않은 것을 고른다.

사과의 좋은 묘목은 뿌리쪽을 포함한 대목길이가 40cm 내외로 재식 후 지상부 대목길이는 20cm가 알맞다. 특히 서로 다른 품종을 20 정도 섞어 심어야 결실이 잘될 뿐만 아니라 과실속의 씨가 충분히 확보돼 정형과를 생산할 수 있다. 1,000평 이하일 경우 2품종 내외, 3,000평 이하는 3품종 내외, 3,000

평 이상은 4~5품종을 심는 것이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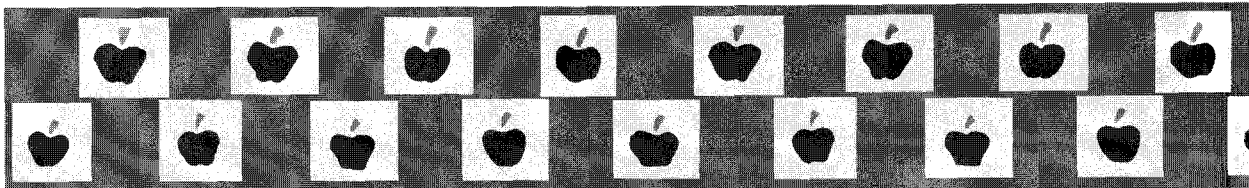
배 묘목은 나무키가 120~

150cm이고 접목부위 3~5cm 상부 원줄기의 지름이 10mm 이상이다. 복숭아는 묘목길이가 110cm 이상 원줄기 지름이 10mm 이상, 포도는 뿌리를 포함한 대목의 길이가 35cm가 적당하다.



◆ 구입요령

봄보다 가을이 좋다. 봄에는 가을철 판매 후 남은 것이 유통되므로 우량 묘목을 구하기 어렵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처가 많은 묘목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과 묘목은 바이로이드(Viroid)병, 배는 날개무늬병·흑성병 등, 복숭아는 근두암종병 등에 감염된 것이 적지 않으므로 주의한





다. 묘목구입은 농림부에 등록된 묘목 업체나 신용이 확실한 업체를 이용한다. 외국산의 경우 국내에서 적응성 시험과 재배기술이나 장단점 등이 확인된 품종을 선택한다.

◆ 구입 후 관리

개원시에는 많은 묘목을 단시간에 취급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해 묘목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구입 후에는 가능한 한 뿌리나 눈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이 떨어지게 되면 새가지 발생이 늦어 수형구성이 어려워지므로 묘목을 재식할 때까지 가식해둘 때는 뿌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흙을 잘 넣고 관수해 재식 전 묘목의 건조피해를 막아야 한다.

◆ 심는 시기와 요령

일반적으로 따뜻한 남쪽지역은 가을에, 추운 지역에서는 봄에 일찍 심는 것이 좋다. 가을 재식은 겨울을 지나는 동안 뿌리에 흙이 잘 달라붙어 이듬해 뿌리 활착과 생육이 좋다. 겨울에는 짚으로 지상부를 싸주고 흙을 덮어 동해·건조피해를 대비한다. 덮은 흙은 봄에 일찍 파헤쳐주어 토양 온도의 상승으로 뿌리 활동을 빠르게 해야 생육이 좋아진다. 봄 재식은 땅이 풀린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심을수록 생육이

좋아진다. 늦게 심을수록 발아가 더디고 뿌리와 줄기 생육도 나빠진다. 봄에 재식할 경우에는 뿌리가 흙과 잘 밀착되도록 하고 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을 덮는다.

※도움말 주신 분

원예연구소 김성중 농업연구사, 대구사과연구소 권순일 농업연구사, 나주배연구소 조광식 농업연구사, 옥천포도시험장 황종택 농업연구사

